1. **ㅂ삼성중공업을 지원한 이유와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기술하십시오.  
   700자 (영문작성 시 1400자) 이내**

내가 학교에서 배웠던, 고전적인 역학과 전공과목들은 비교적 과거의 학문이였고, 실제로 이론들도 1900년대의 이론을 다루는것이 많아서, 새로운 기술들을 배우고 싶고, 이 시대에 살아남고 싶다는 생각에 코딩을 배우기 시작했다. 원래는, 나도 코딩을 잘 배워서 it회사에 가고 싶었지만, 내 마음 속 깊은곳에서는 조선과의 정체성이 있었다. 전공을 살릴지, 아니면 전공을 버리고 프로그래밍을 할지 현실적으로 고민을 되게 오래했다. 이제는 결론이 난것 같다. 나는 sw와 hw를 결합하는 인재가 되고 싶다. 바야흐로, 디지털과 친환경 규제의 시대가 다가왔다. 앞으로의 조선소의 발전방향은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다. 다른 타 조선전공 친구들과 다르게 혼자 길을 찾아,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생소한 컴퓨터 공학과를 공부하면서, 회의감을 느꼈는데, 이제야 빛을 낼 시기가 온것 같았다. 특히, 삼성중공업 채용설명회에서 sw적 지식과 조선 지식이 있는 학생을 원하는것을 넌지시 암시하면서, 내가 이 회사에 정말 가고싶다는 생각을 했다.

스마트 야드와 자율주행이 앞으로의 조선소의 키워드라고 들었다. 현재는 자율주행 기술을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체험해보면서, 인지,판단,제어로 이뤄지는 복합적이고 어려운 예술이라고 생각하는 자율주행 과 자동화와 관련된 스마트야드 둘중 어느것이 될지는 모르지만, 나의 도전정신과 회사 사람들과 함께 디지털 혁신에 이바지 하고싶다

1. **본인의 성장과정을 간략히 기술하되 현재의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 인물 등을 포함하여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작품속 가상인물도 가능)**

**1500자 (영문작성 시 3000자) 이내**

저는 선천적으로 몸이 약하고, 소심하고, 부끄럼이 많고, 할말 잘 못하고, 무리속에서 리더를 하기보다는 팔로워였습니다. 초등학교때는 아이들이 착해서 이런 기질이 상관없었지만, 본격적으로 중학생이 된후 부터는 달랐습니다. 힘이 없으니 괴롭힘을 당하고, 계속 괴롭힘을 당하니 무기력 해지고, 이 지옥이 끝날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회의적인 채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지만, 우연히 고등학교 때 부터는 운동을 접하고 난뒤, 하나의 분야인 운동에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운동이 저의 변화의 시작입니다. 지금도, 꾸준히 운동을 하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더불어,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건 매력있는 남자가 되겠다는 굳은 마음가짐인것 같습니다.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커플들을 보면서, 저런 이쁜 사람과 교제를 하면 기분이 어떨까? 나는 왜 짝이 없고, 나는 진정 남자로서 매력이 없는가? 왜 , 이성에게 차이기만 할까? 그 이후 자기객관화를 시작했습니다. 나의 매력은 무엇일까? 내가 어떤 점이 부족할까?를 매일 매일 생각하면서, 최대한 나 자신을 세상에 노출시키고 경험을 많이 하려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 자신을 냉정하게 피드백했던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면서,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 저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외적인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옷스타일, 머리 스타일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대화 실력을 늘리기 위해, 사람들과 만나 대화한 내용을 복기하면서, 재밌는 말 재미없는 말 분석하기도 하고, 나의 커리어적인 가치를 키우기 위해서, 진로를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나보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 정보를 얻기도 하고, 내가 얻고 싶은 분야의 지식이 있다면, 내가 현재 실력이 없더라도 무작정 프로젝트를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제대하고 24살, 25살, 26살, 27살, 되돌아 보면 제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멘탈이 터진 순간이 엄청 많았던것 같습니다. 내가 평가를 받았을 때, 그것을 자기객관화 해서 인정하고 고쳐나가는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부족한 부분중 무엇을 고쳐야할지, 또 고치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릴 거 같고, 엄청난 노력이 걸릴 거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사람들을 만나서 데이터를 쌓고, 자기계발을 꾸준히 했습니다. 그리고 27살이 된 지금, 저는 남들에게 활발해 보인다, 외향적으로 보인다, 여유가 느껴진다, 유머있다라는 평가를 종종 받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말을 들을 때는, 제 자신이 그렇게 남들에게 보인다는게 잘 믿기지는 않고, 또, 그동안 제가 엄청 노력했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성장하려고 했다는 자세에서 뿌듯함을 많이 느낍니다. 이제는 사회에서 한 축을 담당해야하니, 저의 전문분야를 키워서 더 매력적인 남자가 되고싶습니다. 저를 매력적인 남자로 만들어줄 전문분야를 저의 전공인 조선과 또 관심있는 컴퓨터 공학을 융합을 이용하고 싶습니다.

**최근 사회이슈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가지를 선택하고 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율 0.8명 신생아수 20만명,

자동화와 인공지능으로 인한 일자리 절반 감소.

예를들어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자율주행 자동차와 드론

배민라이더스 알바

대기업 일자리

단순업무는 바로 대체, 전문직업무 대체

일자리가 사리지면,

노인인구

국민들 세금 왕창

실업률 노인

기본소득

배급경제

1등집중화 현상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것은 우리의 미래 일자리와 관련이 있는 4차 산업혁명이슈이다. 자동화와 인공지능이 단순 업무 대체 부터 시작해서 전문직 업무까지 대체한다는 시대가 온다. 미래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2030년에는 일자리가 로봇으로 대체되어, 일자리의 50%가 사라진다는 말이 있다. 또한, 현재 2021년 출산율은 약 0.8명, 태어나는 신생아수는 26만 500명, 베이비붐 시대 때 신생아수의 절반이다. 현재 노인인구 비율은 16%, 십 몇년 지나면 30%가 된다. 결국,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적은 일자리를 가지고 싸우고, 이 적은 일자리로 수많은 노인을 먹여살려야 하는게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제대로 미래를 준비하지 않아서, 로봇들에게 일자리를 대체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남을지 치열하게 고민을 해야한다.

현재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퐁퐁남 논란이다. 남자가 태어나서 아무리 능력을 쌓고, 본인 자기관리를 잘해보았자, 남자로서 사랑도 받지 못하고,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그저 돈버는 기계로 평가받는 삶은 정말 비참할 것이다.